



“광주팬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둘게요”

KIA, 광주 개막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12일 오후 5시30분부터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다.

서재응 “마수걸이 안되네”

피츠버그전 시즌 첫 선발 5이닝 피홈런 3개 등 5실점

서재응(29·LA 다저스)이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홈런 3발을 맞고 휘청거렸다.

서재응은 12일(이하 한국시간)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와 5이닝 동안 홈런 3개를 포함해 7피안타 5실점했다.

첫 선발등경기에서 비록 부진했지만 서재응은 5회까지 6-5로 앞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채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6회 등판한 랜스 카터가 동점홈런을 두들겨 맞아 승리가 날아갔다.

이날 서재응의 투구수는 모두 89개였고 그 가운데 59개가 스트라이크였다.

1회초 다저스는 J.D 드루의 적시타와 리키 라리의 투런홈런 등으로 3점을 먼저 뽑았지만 서재응은 1회말 2사 뒤 제이슨 베이에게 실책성 좌전안타를 맞은 뒤 4번 제레미 버니츠에게 우월 2점홈런을 허용해 2실점했다.

서재응은 2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고 다저스 타선은 3회 빌 윌러가 우월 투런 홈런포를 쏘아올려 5-2로 달아났다.

그러나 3회말 다시 1실점한 서재응은 다저스가 6-3으로 앞선 5회에도 라이언 도밍고와 잭 윌슨에게 잇따라 솔로홈런을 허용, 6-5로 쫓기게 됐다.



서재응이 12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1회 제레미 버니츠로부터 투런 홈런을 맞고 힘겨운듯 땀을 닦고 있다.

피츠버그는 6회초 선두타자 크레이그 윌슨이 바뀐 투수 카터에게 솔로홈런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랜디의 2루타와 호세 카스티요의 내야땅볼로 만든 1사 3루에서 도밍고의 희생플라이로 역전했고 승부는 그대로 굳어졌다.

한편 서재응은 3회 주자 없는 2사에서 상대 선발투수 이언 스넬에게 우익수 앞 바가지 안타를 뽑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승엽 있음에...요미우리 우승확률 89%

새로운 4번 타자 이승엽(30)을 앞세운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우승 확률 89%의 고공비행을 거듭 중이다.

요미우리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호치’는 12일 인터넷판에서 전날 히로시마전에서 5-0 완승을 거둔 요미우리 소식을 전한 뒤 ‘요미우리가 23년만에 개막 후 첫 10경기에서 8승(2패)을 올렸다. 과거 8승을 거뒀던 9번 중 8번이나 센트럴리그를 우승했다’며 시즌 출발이 완벽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자이언츠 역사상 처음으로 80패(62승)를 당하며 리그 5위로 추락한 요미우리는 올 시즌 명가 재건을 목표로 4월부터 총공세

‘스포츠 호치’ 분석

를 펼치기로 작정했고 이런 각오는 개막 후 10경기에서부터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요미우리 초반 강세는 이승엽의 가세에서 출발한다. 무릎 부상 중인 주장 고쿠보 히로키를 대신해 요미우리 역사상 70번째 4번 타자를 계한 이승엽은 11일까지 타율 6위(0.389), 고쿠보와 타점 공동 1위(10개), 득점 1위(15개) 등 공격 전방면에서 리그 톱 10에 올라 해결사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3번 니오카 도모히로-4번 이승엽-5번

다카하시 요시노부-6번 고쿠보 히로키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은 폭발력에서 다른 팀을 압도한다.

정교한 니오카가 안타로 출루하면 이승엽이 안타 또는 득점타로 뒤를 받치며 찬스를 이어가고 중장거리포인 다카하시와 거포 고쿠보가 빼기타로 찬스를 해결짓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고쿠보의 6번행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이승엽은 “요미우리가 한국 선수들의 무덤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회가 적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초반부터 꼭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향남 1이닝 무실점

美 마이너리그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의 우완 투수 최향남(35)이 두 번째 마이너리그 등판에서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최향남은 12일(한국시간) 버니지아주의 하버파크에서 벌어진 노포크 타이즈(뉴욕

매츠 산하)와 원정 경기에서 팀이 4-6으로 뒤진 8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 안타 1개를 맞고 도루도 허용했지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 최향남은 첫 타자 코리 알드리지를 중견수 뜰공으로 처리한 뒤 후속 홀리오 라미레스에게 1루 내야 안타를 맞았다. 후속 토드 셸프 타석 때 도루를 허용했지만 셸프와 다음 타자 조 히트패스를 각각 2루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버펄로는 4-6으로 졌다.

추신수 3타수 2안타

美 마이너리그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타코마 레이니어스 소속의 예비 빅리거 ‘타자’ 추신수(24)가 오랜 만에 화려한 방망이 실력을 뽐냈다.

추신수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체니스타디움에서 열린 새크라

멘토 리버캐츠(오를랜드 산하)와 경기에 볼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장, 4타석에서 볼넷 1개 등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호조의 타격감을 회복하며 마이너리그 시즌 타율을 0.333으로 끌어 올렸다.

1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5회 1사 1루에서 좌전 안타를 때렸으나 득점하지는 못했다. 결국 타코마는 3-8로 졌다.

‘공룡 센터’ 샤킬 오닐

13년만에 트리플더블

‘공룡 센터’ 샤킬 오닐(34·마이애미 히트)이 13년만에 트리플 더블을 해내는 팀 승리를 이끌었다.

오늘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05~2006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그 토론토 랩터스전에서 15점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10개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팀의 106-97 승리에 앞장섰다.

오늘은 이로써 올랜도 매직 소속이던 지난 1993년 11월21일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자신의 첫 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오닐은 “나에게 수비가 두 명씩 달려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찬스를 많이 내주려고 했다”면서 “나는 경기에서 좋은 영향을 주면서 가능한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104-95로 꺾고 서부컨퍼런스에서 맨 처음 60승 고지를 밟으며 컨퍼런스 2위 달러스 매버릭스와 격차를 1경기로 벌렸다. 시카고 불스는 뉴저지 네츠에 104-101로 신승, 36승41패로 동부컨퍼런스 8위 자리에 복귀했다.

Advertisement for '전국은 바다와 심에 꼭 매였다' (The whole country is hooked on the sea) featuring seafood and various dishes.

Advertisement for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Water pipe cleaning company) by 엘케이그린(주) (Elke Green Co.).